

美서 조달한 40조 국내 공급… 통화스와프급 환율 안정 효과

나스닥 ADR 공모로 265억달러 확보
용인·청주 반도체 투자재원 활용
2020년 통화스와프 규모 웃돌아
이달 중하순부터 분할환전 가능성
원·달러 수급 불균형 완화 힘 실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SK하이닉스가 한국 외환시장에 '통화스와프'와 맞먹는 대규모 달러 자금을 국내에 공급할 전망이다.

최근까지 국내 외환시장의 원·달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의 요인이 됐던 만큼, 이번 달러 자금 공급은 장기간 이어진 원화값 약세를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및 공모를 통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ADR은 외국 기업이 자사 주식을 담보로 미국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모된 자



최태원 SK 회장(가운데)과 박노정 SK하이닉스 CEO 등 SK그룹 핵심 경영진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상장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금은 오는 14일 SK하이닉스에 납입될 예정으로, SK하이닉스는 해당 자금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등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달러 자금을 국내 투자에 활용할 예정을 밝히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됐던 고환율

국면의 진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됐던 원·달러 수급 불균형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규모 달러 유입이 '통화스와프' 수준의 과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유통하는 두 국가가 환율을 약정하고 사전 합의한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간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바 있는데, 당시 통화스와프를 통해 공급된 달러는 약 198억7200만 달러 규모다.

이달 초 달러당 1555.8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달러 공급 기대를 선반영하며 1500원 수준까지 내린 가운데,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8~9월까지 순차적인 달러 매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하순부터 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설투자에 필요한 원화를 마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겠지만, 하루 약 10억달러씩 분할 환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며 "실제 달러 공급 효과는 8~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환전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측은 "ADR자금은 증권신고서에 공시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원화로 일부 환전해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환전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DR 데뷔 첫날 13% 급등… 국내 본주 단기약세 가능성

(미국주식예탁증서)

본주보다 약 35만원 높게 거래
당분간 가격 차 이어질 가능성
美 투자 접근성 프리미엄 분석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데뷔 첫날 공모가보다 13% 뛰며 국내 본주와 증시(수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격 격차가 유지될 것이란 데 무게를 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 ADR은 168.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149달러)보다 13.08% 오른

가격이다. ADR은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 교환권'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ADR 10주가 국내 보통주 1주와 같은 가치다.

이를 국내 주가와 비교하면 미국에서 거래된 SK하이닉스 가격은 보통주 1주당 약 252만8000원 수준이다. 전날 국내 증시에서 마감한 SK하이닉스 주가(218만원)보다 약 35만원, 비율로는 약 16% 높은 셈이다.

단기적으로 한국본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눌리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슷한 사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SMC 역시 미국 ADR과 대만 본주 사이에 가격 차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2010~2019년 평균 3.2%였던 ADR 프리미엄은 AI 열풍이 시작된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는 평균 1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 ADR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국 ADR과 한국 본주의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재평가될 것

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식의 희소 가치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주가가 미국 가격만큼 곧바로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은행 UBS 그룹은 지난 7일 고객들에게 발송한 노트에서 "(상장) 첫날부터 미국예탁주식(ADS)를 매수하고 국내 라인(본주)을 공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UBS는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의 국내 상장장에서 미국 2차 ADR 상장으로 향

후 전환할 때 허용되는 외국인 보유 한도 여유분에 주목할 것"이라며 "이런 한도 탄력성이 없다면 접근성 부족으로 미국 라인이 뚜렷하고 지속적인 프리미엄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ADR이 국내 주식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과 국내 본주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 붙는 별도의 프리미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가격 차이가 국내 주가 상승으로 좁혀질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만의 프리미엄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시작

경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공간·사람의 연결, 글로벌 혁신 거점 완성

- 비수도권 최대 첨단산업 생태계
- 전국 최대의 농업·임업 생산지
-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
- 국토 중심의 우수한 교통망

국토 공간 대전환 시대, 균형발전의 중심
경상북도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경상북도

www.gb.go.kr